



한국남동발전 발전부산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는 커피박(커피찌꺼기) 재활용 전문 기업인 (주) 커피큐브와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공유가치 창출(CSV)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소 운영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석탄회를 가공한 1mm 이하 크기의 저회경량골재와 커피박을 재활용한 커피점토를 적정비율로 배합해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기술을 활용,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영흥발전본부는 대전에 위치한 행동발달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인 거북이보호작업장에 생산기술을 전수했으며, 장애인들이 직접 화분, 볼펜, 수공예품을 생산하고 있다. 발전본부는 또 대형마트

와 커피전문점을 연계한 제품 홍보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인천시, 홈플러스와 공동으로 미세먼지 저감 시민생활 지원을 위한 CSV 사업을 추진해 판매수익금으로 인천지역 장애인복지관, 노인 보호 전문시설 등 78개 기관, 2천800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5만개를 보급했다.

영흥발전본부 유준석 본부장은 “버려지던 자원을 재활용해 사회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CSV 사업을 준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친환경 화분 및 볼펜